

12면에서 계속

의 집무처)에 오래 있으면 기필코 안정 安靜을 해치지 않을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그 숨어 잠복된 바를 살피시고 사부士夫들의 의논에 부처 알아보신 연후에 신의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주소서’ 하였다. 이때 황제가 바야흐로 왕안석을 권주眷注하고 있던 터라 그 장소章疏를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려주었다. 이에 여회가 조정에서 물러나기를 구하니 황제가 그를 등주鄧州의 지사知事로 내보냈다.

여회가 앞서 이같은 상소를 하려고 하자 사마광司馬光이 말렸다. 그러나 여회는 ‘안석이 비록 시명時名을 드날리고 있으나 편견偏見을 고집하기 좋아하고 간회姦回한 무리를 가볍게 신임하며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즐기니 그 말을 들으면 아름다우나 이를 베풀어 행해보면 엉성합니다. 그를 재보宰輔의 자리에 두면 천하가 반드시 그 화를 입을 것이오. 또한 상上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더불어 국사를 도모해 다스리는 것이 두셋 집정자일 뿐이니 진실로 거기에 적임자가 있지 않고서는 장차 나랏일이 낭패될 것이오. 이것이 내가 복심腹心으로 병되게 여기는 바라 오직 구제하고자 하여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무엇을 되돌아보며 늦추겠습니까’ 하였다. 여회가 외직으로 배척된 뒤에 왕안석은 더욱 전횡하게 되었다.

제목 여회선견은 여회가 먼저 내다보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다는 뜻이다. 왕안석王安石은 송나라 무주撫州 임천臨川 사람으로 호는 반산半山, 시호는 문공文公이며 경력慶曆 연간에 진사進士가 되어 신종神宗 때 발탁되었다. 청묘靑苗, 수리水利, 군수均輸, 보갑保甲, 모역募役, 시역市易, 보마保馬, 방전方田, 균세均稅 등의 신법을 실시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으나 사마광司馬光, 문언박文彦博 등 구법당舊法黨의 반대에 부딪혔고 재상에서 파직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경전을 해석함에 선학先學의 설에서 탈피하였고 역사 변화의 설을 강조하여 보수주의에 맞섰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시문은 사회 현실을 많이 반영하였으며 품격이 웅건하였다. 형국공荊國公에 봉해지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여회呂誨는 자가 헌가獻可이고 진사로서 벼슬이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이르렀을 때 왕안석을 탄핵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송나라의 명신전名臣傳에 오른 인물이다. 사마광司馬光은 송의 하현夏縣 사람으로 호는 제물자齊物子,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보원寶元 연간에 진사가 되고 신종神宗 때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서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하다가 서경西京에 좌천되고 철종哲宗 초년에 재상이 되어 신법 중에서 백성에 해로운 것을 모두 개정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을 지은 대학자로 속수선생涑水先生이라 불리고 태사온國公太師溫國公에 추증되어 흔히 사마온공司馬溫公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옥표민중중막지玉表珥中衆莫知 : 옥돌과 같은 상소의 뜻 무리가 알지 못하니
독론간교항봉사獨論奸巧抗封詞 : 간

교한 자 혼자서 봉해 올린 글 막아 내렸네
여하불청환소척如何不聽還疎斥 : 어찌하여 상소를 듣지 않고 내쳐 보내서
경사형서자소위竟使荊舒恣所爲 : 기어코 형국공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게 하였는가

지인자고최위난知人自古最爲難 : 사람을 아는 것 자고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

문정당시상오관文正當時尙誤觀 : 사마온공마저 당시에는 잘못 보았으니
선견여공능기허先見如公能幾許 : 공과 같이 미리 내다본 이 몇이나 될 것인가

창생소설사감탄蒼生騷屑事堪嘆 : 창생은 이를 시원한 바람처럼 감탄한다네.

169. 조우절간祖禹切諫

송나라 때 이야기이다. 황제나 태자太子에게 경사經史를 강하는 한림원翰林院 시강侍講 범조우范祖禹가 항상 강이 있는 전날 저녁에는 반드시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주상主上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엄숙한 태도로 자기 자제들을 입시케 해서 다음날 가르칠 경전을 강설講說하는데 옛 의의意義를 개열開列하여 들고 거기에 당시의 사건을 들어 참작케 하되 말이 간명하고 마땅하며 장황한 소리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의리義理가 명백하고 찬연한 문장을 이루게 하였다. 상서尙書(서경書經)를 강할 때에는 ‘내작색황內作色荒 : 안으로 여색에 빠지고 외재금황外在禽荒 : 밖으로 사냥에 빠지며 감주기음D酒嗜音 : 술에 취하여 풍류를 기호嗜好하고 준우조장峻宇雕牆 : 드높은 집에 담장까지 무늬를 새긴다면 유일우차有一于此 : 여기에 이르는 길이 하나 있으니 미혹불망未或不亡 : 혹시라도 망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한 부분을 강하고는 다시 이 여섯 구절을 암송한 다음에 반듯이 일어서서 황제께 ‘원컨대 폐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였고 이에 철종哲宗이 재삼 머리를 끄덕여 수공한 연후야아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니 시독侍讀 소식蘇軾이 범조우를 일러 강관講官 중에 제일이라 하였다.

한번은 그가 궁궐의 금중禁中에서 유온乳溫(유모) 10인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때 황제의 연세가 아직 여색女色을 가까이해서는 안될 무렵이었다. 범조우는 곧 황제께 상소하여 덕을 진발시키고 몸을 애중愛重할 것을 권면하고 또한 태황태후太皇太后(황제의 할머니)에게 상소하여 ‘천금지가千金之家에서도 13세의 아들이 있으면 오히려 여색에 가까이하게 하기를 싫어할 터인데 하물며 만승지주萬乘之主에 있어서이리이까? 폐하께서 자손을 사랑하시면서 여기에 유의치 아니하신다면 이는 자손을 사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미목美木이 바야흐로 자라는 것에 비유한다면 잘 봉식封植하고 북돋아주어 해를 가리는 것이 구름을 능가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어늘 그 뿌리를 베어 죽이려한다면 어찌 해롭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태후가 심히 가상嘉賞하였다.

제목 조우절간은 범조우가 간절히 간하였다는 뜻이다. 범조우는 송나라 성도成都의 화양華陽 사람으로 자는 순보淳甫 또는 몽득夢得, 시호는 정현正獻이다. 가우嘉祐 연간에 진사進士를

하여 비서성 정자秘書省正字, 저작좌랑著作佐郎,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섬주지주사陝州知州事 등을 지내고 뒤에 태사太師로 추증되었다. 사마광司馬光을 도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하였고 신종실록神宗實錄을 편수할 때에도 검토관檢討官으로 참여하였다. 저술에 당감唐鑑과 범태사집范太師集이 있다.

소식蘇軾은 송나라 미주眉州의 미산眉山 사람으로 자는 자첨子瞻 또는 화중和仲이고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여서 ‘소동파 토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가우嘉祐 시대에 진사를 하여 중서사인中書舍人, 한림학사점 시독,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냈다.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에 반대한 대표적 구법파로서 여러 차례 황주黃州, 항주杭州, 혜주惠州 등지로 좌천이나 귀양을 다녔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1인으로 시는 당대 최고로 평가되며 글씨와 그림에도 뛰어났다. 파공坡公, 파선坡仙, 대소大蘇로도 불리는데 같은 당송팔대가인 그 아버지 노소老蘇 소순蘇洵, 그 아우 소소小蘇 소철蘇轍과 함께 삼소三蘇로 일컫는다. 철종哲宗은 송의 7대 황제로 신종神宗의 제6자이며 13세에 즉위하여 태황태후 고씨高氏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다. 사마광司馬光, 여공저呂公著를 등용하여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을 파하고 장돈章惇, 채확蔡確 등을 내쳤다. 뒤에 친정親政을 펴게 되어서는 장돈을 재상삼고 왕안석의 신법과 경의經義를 회복시키고 사마광 등에게도 추시追諡하였다. 재위는 15년으로 28세에 홍薨했는데 연호年號는 셋으로서 원우元祐, 소성紹聖, 원부元符를 썼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제년비시근궁인帝年非是近宮人 : 황제의 나이 미성인데 궁인을 가까이한다니

조우시위시강신祖禹時爲侍講臣 : 범조우가 이때 시강하는 신하로서

진덕애신충간소進德愛身忠諫疏 : 덕을 기르고 몸을 아끼라는 충간의 소를 올려

정녕비유달중신丁寧比喻達中宸 : 정녕한 비유로 궁중이 사무치게 하였네

평거유자정관의平居猶自正冠衣 : 평상시에도 홀로 의관을 정제하고

여재군전시독시如在君前侍讀時 : 임금 앞에서 시독할 때와 같이 하며

개고참금언간절開古參今言簡切 : 옛것을 열고 오늘을 참작하는 말은 간명하였으니

갱장서훈일잠규更將書訓日箴規 : 다시 일깨우는 경서의 가르침이 매일의 잠언이 되었네.

170. 왕품부분王稟赴汾

정강靖康(송宋 흙종欽宗 연호) 원년元年(1126)에 왕품王稟이 선무사통제宣撫使統制가 되어 태원太原을 지키게 되었는데 태원을 수어守禦하면서 왕품이 세운 공이 많았다. 그러나 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쇠약하고 지친 군사를 거느리고 서문西門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문 삽판插板(성문 곁에 문짝과 같은 크기로 느릅나무 따위에 쇠가죽을 씌우고 철판을 덮어 설치하는 덧문)의 동아줄이 잘려 이를 열고 나갈 수가 없는데 적군이 이미 입성하여 창황한 가운데 사졸이 왕품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였다. 이

에 왕품이 탄식하며 ‘성이 함락되고 사졸은 투지가 없으며 또한 문은 막혔으니 하늘이 품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 품이 일어나 죽는 것이 아까워 하늘의 명을 어기고 조정을 배반하겠느냐’ 하고는 마침내 원묘原廟(본디의 종묘宗廟 외에 거듭 지은 종묘)에서 태종太宗(송의 2대 황제 조경趙昚)의 어용御容을 등에 지고 나가 분수汾水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전운轉運과 한총韓總 이하 따라 죽은 자가 36인이었다. 성을 포위한 것이 무릇 260일이었는데 성안의 군사와 백성으로 굶어죽은 자가 십중팔구十中八九이되 군세게 지키고 있어 떨어지지 않더니 이에 이르러 비로소 깨지게 되었다.

제목 왕품부분은 왕품이 분수로 나아갔다는 뜻이다. 왕품王稟은 송의 개봉開封 사람으로 자는 정신正臣,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무주관찰사登州觀察使, 선무사도통제宣撫司都統制 등을 거쳐 정강靖康 연간에 태원太原에서 금金나라 군의 침입을 굳게 지킨 공으로 건무군절도사建武軍節度使에 발탁되어 군대를 총괄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강에 투신하였다.

그 찬시讚詩는 다음과 같다.

태원증시국번병太原曾是國藩屏 : 태원은 일찍부터 나라의 울타리이자 병풍인 곳

금장병봉사신봉金將兵鋒似迅逢 : 금나라 군사 예봉이 신속히 도달하는데

성함인리천불우城陷人離天不佑 : 성은 함락되고 사람은 흩어지며 하늘은 돕지 않아도

구생안감부조정苟生安敢負朝廷 : 구차히 살고자 어찌 조정을 등질 것인가
강적위성시수중強敵圍城至數重 : 강적이 성을 에워싸기 몇겹에 이르고

왕공고수기교봉王公固守幾交鋒 : 왕공이 굳게 지키며 예봉을 부딪치기 몇차례인가

군민아사십지구軍民餓死十之九 : 군사와 백성 굶어죽은 것이 열에 아홉인데

투수환능부어용投水還能負御容 : 물에 투신하면서도 오히려 어진御眞을 등에 업었네.

171. 약수효사若水 死

송나라 정강靖康 2년(1127)에 휘종徽宗이 금金나라의 군영軍營에 이르니 금인金人이 황제를 핍박하여 옷을 바꿔 입히려 하였다. 이부시랑吏部侍郎 이약수李若水가 황제의 옷을 벗기지 못하게 끌어안고 울며 금인을 개같은 것이라 꾸짖었다. 금인이 이약수를 잡아끌어 밖으로 내쳐서는 두들겨패니 그 얼굴이 망가지면서 치미는 담으로 목구멍이 막혀 땅에 엎어졌다. 점물갈粘沒喝이 이를 보고 ‘반드시 이시랑李侍郎이 무양無恙하게 하라’ 명하였는데 이약수는 식음을 끊고 일체 먹지 않았다.

혹자가 와서 권면하면서 ‘오늘 순종하면 명일明日에 부귀하리라’ 하니 이약수가 탄식하면서 ‘하늘에 해가 들어 없는데 약수에게 어찌 두 임금이 있으랴’ 하였다. 그의 증복 또한 위로하고 설득하여 ‘공의 부모께서 춘추가 높으신데 만약 조금 굶히시면 한번 돌아가 뵈고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약수가 꾸짖기를 ‘충신으로서 임금을

15면으로 계속